

# ‘30살’ 아시아나, 노선 60% ‘장거리 날개’로 채운다

**ASIANA AIRLINES**

아시아나항공 창립 30주년

신기종 여객기 총 32대 추가 확보  
“장거리 확대로 새로운 30년 준비”

아시아나항공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아시아지역 중장거리 노선 운행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장거리지역 노선 운행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아시아나항공 김수천 사장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시아지역 중장거리 노선운행은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 수준만 유지하고 장거리지역 노선운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사장은 “1988년 아시아나항공 창립 당시, 이미 국내에는 20여년간 국내 항공산업계를 독점하고 있던 경쟁사가 있었다”면서 “당시에는 아시아나항공의 미래에 대해선 누구도 기약할 수 없었다”



아시아나항공 창립 30주년 기자간담회가 열린 6일 오전 서울 종로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김수천 대표이사(왼쪽 첫번째)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사장은 LCC의 급성장과 외항사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날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항공업계 상황에 대해 “이전에는 아시아지역 중장거리 노선 공급에 주력했지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의 때”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는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장거리지역 노선 공급에 주력하겠다”고 미래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김사장의 미래계획에 발맞춰 장거리 노선 공급을 위해 A380, A350 등 최첨단의 신기종 도입하고 2022년까지 총 32대의 장거리 여객기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노선공급이 전체공급의 60%를 차지하는 장거리 중심 노선운행 항공사로 탈바꿈한다.

이밖에도 아시아나항공은 5월과 8월 베

네치아와 바르셀로나 신규취항이 예정돼 있다. 베네치아는 아시아나항공의 단독노선이자 아시아와 베네치아를 잇는 유일한 직항노선이며, 바르셀로나 또한 시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11월 야마무라 아키요시 부사장을 영입해 ‘사고가 난 후’가 아닌 ‘사고가 나기 전’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안전보안’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부터 비행자료(FOQA)를 활용해 운항승무원의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2016년 11월에는 회사의 안전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안전정보시스템을 개발해 회사의 안전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나유리 인턴기자 yul115@metroseoul.co.kr



LS전선 안전요원이 전문 장비를 사용해 고객사의 노후화된 케이블의 안전성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 /LS전선

## LS전선 ‘화재 예방’ 케이블 안전컨설팅 첫 선

국내 최초 전력 계통 ‘종합 서비스’  
대형화재 예방·지속가능경영 실천

LS전선은 국내외 주요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케이블 안전진단’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서 케이블은 물론 전력 설비까지 전력 계통 전체에 대해 종합적인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LS전선이 처음이다.

회사 측은 이번 사업이 제품 중심에서 운영·관리 시스템, 기술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의 하나로, 최근 잇단 대형 화재 이후 안전진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LS전선은 케이블의 부분 방전과 파손, 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기적, 기계적 특성 변화와 접촉함 등 전력 설비를 포함한 전력 계통 전체에 대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LS전선은 앞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고장여부를 사전에 예지하는 서비스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설비들이 70~80년대에 지어져 상당수의 케이블 선로가 노후돼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케이블 안전진단 사업은 대형 화재 예방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정은미 기자

## ‘IoT로 젖소 건강관리’… 남양유업 목장 도입

SKT 가축관리서비스 ‘라이브케어’

SK텔레콤은 남양유업, 유라이크코리아와 협력을 맺고 사물인터넷(IoT) 가축 관리서비스 ‘라이브케어’를 남양유업 목장에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라이브케어는 소의 첫 번째 위(반죽위)에 IoT 통신 모듈을 탑재한 바이오캡슐을 투입, 소의 체온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의 질병 징후와 수정 적기 예측, 분만 징후 파악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양유업은 전국 6개 농장의 700두 젖소를 대상으로 ▲젖소의 발정·수정·분만 시기 알람 ▲구제역, 식체, 폐렴 등 질병 예찰 ▲전체 개체 인&아웃 ▲항생제 투여이력 등 라이브케어를 통해 개체관리를 하게 된다.

남양유업은 젖소의 생체변화와 건강상



SK텔레콤 김성환 스마트 시티 유닛장, 유라이크코리아 김희진 대표, 남양유업 김승운 생산전략본부장(왼쪽부터)이 사업 협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태를 실시간 확인해 건강한 젖소로부터 최고 품질의 원유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유를 프리미엄 유기농 우유 ‘울온’ 브랜드에 적극 도입해 상반기 중 새로운 제품 라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 대유위니아 “딤채 넘어 종합가전社로”

세탁기·에어컨 등 매출 비중 강화

“해외진출 본격화, 2020년 매출 1조”

대유위니아가 2020년 매출 1조원의 종합가전회사로의 도약을 위해 올해부터 사업 다각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최근 위니아 브랜드로 세탁기를 출시한데 이어 ‘2018년형 위니아 에어컨’으로 전체 매출에서 에어컨 매출 비중을 최대 2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진출한 미국과 중국 외에 베트남 등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 개척에도 나선다.

박성관 대유위니아 대표이는 6일 서울 송파구 롯데하이마트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2018년형 위니아 에어컨’ 신제품 발표회에서 이 같은 2018년 경영 전략을 밝혔다. 박 대표는 “올해 일반 냉장고와 세



박성관 대유위니아 대표가 6일 서울 송파구 롯데하이마트 월드타워점에서 2018년도 경영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는 2015년 80.2%까지 되던 딤채 매출 비중을 계속 해 줄여 지난해 60% 중반까지 낮췄다.

지난달에는 드럼세탁기와 일반 세탁기 4종을 동시에 내놓았다.

대유위니아는 이날 ‘2018년형 위니아 에어컨’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돌레바람’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찬바람을 직접 맞지 않아도 쾌적한 냉방이 가능하다. 또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탑재해 언제 어디서든 선호하는 냉방을 원클릭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박 대표는 “그간 에어컨 시장은 주로 벽걸이형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올해는 2018년형 위니아 에어컨으로 스탠드형 시장에 주력해 가정용 에어컨 시장에서 3위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업용 시장 공략, 적극적인 유통망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

## 현대모비스 ‘스스로 척척’… 원격 전자동 주차시스템 양산

현대모비스가 독자 개발한 최첨단 제동·주차 기술을 글로벌 부품업체 중 두 번째로이자 국내 업체 최초로 공급한다.

6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충남 천안공장과 충북 진천공장에서 각각 차세대 전동식 통합 회생제동시스템(iMEB)과 원격 전자동 주차시스템(RSPA)의 양산 준비를 마쳤다.

이로써 현대모비스는 제동·주차지원시스템 후발 주자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iMEB-RSPA는 기획 단계부터 경쟁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는 ‘캐치-업’ 전략 대신 선도 기술을 단번에 확보하는 ‘점프-업’ 전략을 과감히 적용했다. 경쟁사들이 분리형(유압·전동식) 회생제동시스템, 조향·가감속·변속을 자동화한 전자동 주차시스템의 상용화에 집중할 때 현대모비스는 단계별 기술을 모두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회생제동시스템은 차량 감속 시 구동 모터를 발전시켜 배터리를 충전하는 친



현대모비스가 원격 전자동 주차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그 결과 현대모비스 iMEB는 글로벌 선도 제품대비 제동 응답성은 13% 높이고 중량은 5% 낮췄다. 원가도 기존 유압 충진식 분리형 시스템 대비 30% 줄였다. 이에 따라 긴급 제동 거리를 단축시키고 연비 개선, 부품 크기 축소뿐만 아니라 완성차 가격경쟁력에도 일조하게 됐다.

RSPA는 주차·출차에 필요한 변속, 핸들링, 가감속을 모두 자동화하고 스마트 키 원격제어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자동차 전후·측방 12개 초음파 센서가 주차 공간 탐색을 완료하면 운전자가 승·하차한 상태서 스마트 키 조작으로 자동 주차하는 식이다. 반대로 주차된 차량을 원격 출차시킬 수도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iMEB, RSPA의 천환경차 양산 공급을 계기로 향후 국산 내연기관 자동차까지 공급 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데다 충분한 기술경쟁력까지 확보한 만큼 해외 수주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